



부안 계화면 주민자치위, 3분기 정기회의 개최

부안군 계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3일 계화면사무소에서 3분기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계화면 출생아 가족을 초청해 출생 축하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출생 축하금 전달식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참석수당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해 2025년 계화면에서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6명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8월 중 반려식물 키우기 원데이 클래스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결 주민자치위원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계화면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남원 왕정동, 폭염 사각지대 찾아 선제적 대응

남원시 왕정동(동장 김민주)은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폭염 대비 집중 점검 대상자 가정방문을 추진 중이다. 동은 이번 점검을 통해 김민주 동장이 매일 5가구씩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폭염 대응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구별 실내 주거환경 및 생활 여건 확인 △냉방기구(선풍기, 에어컨) 작동 여부 점검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 등이다. 특히 냉방기가 없거나 고장 난 가구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선풍기, 쿨매트 등 필요한 냉방물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서 용지파출소, 농산물 절도 예방 치안활동

김제경찰서(서장 허성수) 용지파출소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가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농산물 절도 예방 치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번 대책은 농산물 가치 상승에 따른 절도 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가 밀집 지역 중심으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펼쳐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민·경 합동 순찰 체계를 구축하여방법 효과를 높이는 한편,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절도 예방을 4대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기전대 축구부, KUSF 학생선수 두드림 4회 연속 선정

전문대 유일 '두드림-배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선정... 학업·운동 병행 지원 역량 입증

전주기전대학 축구부가 한국대학스포츠험의회(KUSF)가 주관하는 '2026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학생선수 지원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운동재활과 축구부가 '2026 KUSF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전주기전대학은 '두드림-배움 프로그램'에 선정된 전국 유일의 전문대학으로, 학생선수의 학사관리와 교육지원 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KUSF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대학 학생선수들의 학습역량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학별 운영 형태에 따라 '두드림-배움', '두드림-이음', '두드림-함께'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전주기전대학은 KUSF 지원금 1천100만 원과 대학 자체 예산을 투입해 교수진이 전문튜터, 일반학생이 학생튜터로 참여하는 서킷 튜터링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축구부 학생선수들에게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업과 훈련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2022년 처음 이 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올해도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두드림-배움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면서 학생선수 지원 시스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부총장은 “학교생활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훈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스포츠험의회는 학생선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향후 대학 운동부 평가와 지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어서, 이번 선정은 전주기전대학의 학생선수 육성 체계와 대학 운동부 운영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순창소방서, 특수가연물 취급·저장 사업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순창소방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특수가연물 취급·저장 사업장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제조업 공장 등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군산지역 우드칩 선별 공장에서 자연발화로 인해 건물과 중장비 등이 소멸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익산의 한 톱밥 생산·보관 공장에서도 목재 부산물 더미에서 자연발화가 발생해 약 800여 톤의 목재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이처럼 우드칩, 톱밥 등 특수가연물은 장기간 적재 시 내부 열 축적으로 인한 자연발화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관내 5개 특수가연물 취급·저장 추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자율적인 안



을 안내하고, 관계인 유선 확인을 통해 특수가연물 저장 여부와 보관 수량, 관리 형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저장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장수소방서, 119에 비응급 환자 신고 자제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정지현)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와 올바른 119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에게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22일 당부했다.

법령에서 정하는 비응급환자 대상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출혈이 없는 단순 타박상 및 찰과상 △추위자(강한 자극에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병원 간 이송 목적 등이다.

가벼운 증상이나 단순 외래 진료를 위해 구급차가 출동하여 관할 구역을 비우게 되면, 심정지나 중증 교통사고 등 생명과 직결된 진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 도착이 지연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부안 진서면, 무더위 쉼터 경로당·취약계층 방문

부안군 진서면은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절기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확인과 무더위 쉼터 경로당 방문을 실시하며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부 확인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고령가구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안부를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내 경로당 18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냉방시설 운영 상태와 실내 온도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진안군청 자방클럽, 주천 화재 피해가구에 에어컨 전달

진안군청 자원봉사클럽(회장 이효율)은 지난 22일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재피해 가구를 찾아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전달하며 시원한 나눔을 실천했다.

주천면에 소재한 해당 가구는 지난 2월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를 전해들은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클럽 회원들은 매일 십시일반 모인 돈 화비를 활용해 이번 에어컨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